DS INVESTMENT & SECURITIES

Issue Comment

재생에너지

2026.01.19

안주원 재생에너지·미드스몰캡 / joowonahn@ds-sec.co.kr
김진형 연구원 / jh.kim@ds-sec.co.kr

전력사업이 된 데이터센터

▪ **이슈: 데이터센터 소유/운영자가 입찰하는 긴급 전력 경매 추진**

- 올해 9월 이전 시행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소유/운영자들이 전력 경매에 입찰해 15년 간 사용할 전력확보
-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며 15년 간 분할 방식으로 발전사에게 지급
- 발전사는 고정수익 유입.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장기 전력 공급 보장 권리 확보와 함께 투자 주체가 됨
-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주요 전력 밸류체인 별 상반된 주가 흐름 보임. 연료전지 BloomEnergy 신고가, 발전사인 Vistra/Constellation 주가 하락, 가스터빈 GEVernova 및 원전관련 기업 상승

▪ **함의: 전력 투자 주체 이동과 전통적인 전력 공급 모델의 한계**

- 금번 이슈는 앞으로 전력 소비 주체가 발전원 선택, 투자 집행, 전력 조달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됨. 이는 전통적으로 발전사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
- 기존 전력 공급 방식은 코로나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급 부족, 인건비/공사비 상승 및 긴 인허가 절차 등에 기인
- 긴급 경매 형태의 전력 조달 방식이 보편화 될 경우 전력 확보 유무 자체가 데이터센터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며 CAPEX 부담이 가능한 소수 기업 위주의 투자 진행될 가능성 높음

▪ **보조금, 속도, 계통 연결 최소화 요건 갖춘 연료전지 발전의 구조적 성장**

- 발전소 건설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정 발전원에 대한 수요 쏠림 심화될 것으로 예상
- 연료전지는 보조금 혜택 있으며 타 발전원과 비교 시 가장 빠른 설치 가능, 분산전원으로 계통 연결 수월
- 연료전지 발전원의 구조적 성장 예상하며 BloomEnergy 최대 수혜, 국내 관련 기업은 두산퓨얼셀, 비나텍

[Compliance Notice]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